

# 금년도 출판시장 '대체로 맑음' 예상

## 리메이크 출판 붐, 문고판 부활 조짐

## 소설 비롯, 경제경영·인문·아동서 활기떨 듯

글\_ 김중화(반디엔루니스 이사)



### 비소설, 경제경영, 아동 등 꾸준한 성장 그래프

최근 5년간 출판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 오다가 2004년의 최저점을 지나 2005년부터는 다소나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유통시장의 양극화가 불러온 착시현상이 아닌 시장규모의 확대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대형서점(출처: 반디엔루니스, 교보문고, 영풍문고의 2001~2005년 매출동향보고서/각 서점 기획실 제출 자료들의 최근 4개년간 각 분야별 판매동향)을 기초로 2006년도 출판시장을 예측해 보면 소설의 경우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 29.60퍼센트의 신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9.05퍼센트, 2004년도에는 -4.07퍼센트의 신장률을 보임으로써 절망적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이르러 7.88퍼센트의 신장률을 보임에 따라 2006년도 서적시장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비소설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27.94퍼센트, 2003년도

에 7.10퍼센트, 2004년도에 -2.53퍼센트의 신장률을 기록하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 왔으나 2005년도에는 0.96퍼센트의 신장률을 보이면서 미세하나마 상승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 비소설, 인문, 경제경영, 아동 분야 등이 주류

경제경영서의 경우는 2002년도에 12.90퍼센트, 2003년도에 9.59퍼센트, 2004년도에 4.06퍼센트의 신장률을 보이면서 다소 침체되고 있었으나 2005년도에 8.53퍼센트의 신장률을 보이면서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문서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21.79퍼센트를 기록한 이후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3퍼센트 대의 신장률을 보임에 따라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을 유지해오고 있어 2006년도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아동도서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15.49퍼센트의 신장률을 보였으나 2003년도에는 5.37퍼센트, 2004년도에는 3.12퍼센트의 신장률 보이면서 신장세가 둔화되어 가다가 2005년도에

**“2005년도 소설시장의 신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2006년의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발표와 같이 소비심리의 회복이 출판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6.67퍼센트의 신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 따라서 2006년도 아동도서의 전망은 2005년도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의 맥락에서 볼 때 2006년도 출판시장의 전망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 소설시장의 신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2006년의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발표와 같이 소비심리의 회복이 출판시장의 확대에 이어지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06년도의 출판시장은 소설을 필두로 하여 비소설과, 인문, 경제경영, 아동도서 등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 된다. 따라서 소설이 출판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트렌드'로는 '리메이크 출판의 활성화'와 '문고본의 부활'이 예견된다.

#### 리메이크출판, 문고본, 한자판권서, 경제경영서 꾸준한 강세 예상

리메이크 출판은 이미 2005년도 말부터 시작되어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80년대의 러브로망으로 통하는 최인호의 《겨울나그네》가 젊은 독자층을 겨냥하여 표지를 바꾸고 개작하여 20년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였으며, 토정 이지함의 고단한 삶과 인생 역정을 그린 이재운의 《토정비결》역시 15년 만에 수정 보완되어 재출간되었다. 이 밖에도 장정일의 《아담이 눈뜰 때》와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등 다수의 국내외 문학 작품들이 리메이크 출판을 통해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거듭되는 불황으로 인해 출판사들이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발굴하데 인색하면서 안정적인 출판만을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우수한 문학 작품들을 재조명하고 문학, 예술에 대한 대중들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지대한 관심거리로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로 예상되는 문고본 출판 역시 2005년 말 부터 다수 출간되고 있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 컨설팅연구소의 성별 도서구매 성향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책의 크기나 두께 보다는 가격에 민감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가격 보다는 책의 크기나 두께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핸드백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와 두께의 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우리 출판계에도 문고본의 부활을 예고하는 징후로 보여지고 있다.

이 밖에도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이어 영화나 드라마의 대중적인 인기의 상호작용으로 '해리포터' 시리즈나 《나니아 연대기》, 《도쿄타워》 등이 상당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에 그 이름을 올릴 것이며, 한문 교육의 붐 조성에 따른 《마법천자문》 등 한자, 한문 관련 도서나 사회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된 경제·경영 도서를 또한 꾸준히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

스테디한 라인에 주목하는 출판사들,  
청소년 출판이 본격적 서막을 열 조짐

“큰 이슈나 화제거리보단 스테디한 라인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출판사의 대다수 편집장급 관련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2006년도에는 한 두 장르의 히트보다는 그간 출간된 책들이 그야말로 ‘꾸준한 판매노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유통문화사 권오상 부장은 “시장 자체는 올해와 비슷한 분위기로 흐를 것 같다”며 임팩트가 있는 책을 준비하기 보다는 스테디셀러로 나갈 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경영서적을 주로 출간해 온 더난출판의 박정하 팀장 역시 “지난 해 자기를 긍정하는 쪽으로 이끄는 라인의 책들이 사랑을 받았는데 새해에도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줄 것 같다”며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돌베개 출판사의 이정아 팀장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독일 월드컵이 개최되긴 하지만 출판계에 큰 변화를 줄 것 같진 않다. 사회적 트렌드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 외에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말미에 ‘청소년 출판의 활성화’를 올해 주목할 키워드로 손꼽았다. 이경아 팀장은 출판사마다 청소년물에 매달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올해는 이 분야에서 완성도 있는 출판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을 했다. 실제로 지난 해 청소년물을 본격적으로 선보인 웅진주니어는 꽤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청소년 출판 시작을 알렸었다. 김상미 편집장은 “교육제도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고 논술에 대한 중요성도 커진 상황이라 내년엔 이 분야 시장이 좀더 확장될 것 같다”고 비슷한 추측을 했다. 이에 더해 교보문고 광학문점의 박연희 씨는 비단 “수능철에만 눈썹이 아니다. 일반 동화책의 경우에도 논술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봅시다’ 같은 팁을 적극 활용한 편집을 선보이고 있는 추세”라며 곧 논술을 겨냥한 청소년출판물들이 주제를 막론하고 쏟아질 분위기를 암시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진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야도 있다. 교보문고 북마스터 신길례 씨는 “문학 분야에선 일본문학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소설책의 출간 자체도 잘 안 되는 분위기고, 독자반응도 미미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해 중반에 《모모》가, 후반에는 《해리포터》가 큰 반향을 얻으면서 문학 분야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세워줬지만 실제로 우리소설은 출간종수 자체부터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단시간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다수의 관련자들은 《나니아 연대기》 같은 번역 판타지가 반응을 얻어 우리 소설이 설 자리는 여전히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각 출판사측에서는 2006년도에 출간 대기중인 라인업을 조심스럽게 공개했다. 우선 웅진주니어측은 지난 해 10월 말에 내놓은 《어린이박물관》이 반응에 힘입어 후속편(고대시대 이후)을 선보일 예정이며 지난 해 선보였던 《한국사탐험대》를 비롯 책읽는고래 등의 기획물을 꾸준히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난출판은 퇴직연금시대, 발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자산설계 분야의 책을 더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시작하자는 취지로 젊은 독자층을 겨냥한 출판물이 나올 예정이다. 돌베개는 《소년의 눈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서경식 씨의 책 두 권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9명의 필자가 쓴 근대를 주제로 한 책도 선을 보일 예정이며 박희병 선생의 시문서화집과 선생이 직접 기획한 100편 짜리 고전문학작가선집의 1차 본도 올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책들이라고 밝혔다.

취재 김철연 기자